

# 민주당, 사회개혁 첫 화두는 '유치원'

### 새해 첫 현장 최고위원회 사립유치원서 개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과 같은 맥락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유치원 3법'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당부했다.

이에 발맞춰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첫 민생 행보로 유치원을 찾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1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사립유치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이는 이해찬 대표 당선 이후 처음으로 여는 현장 최고위원회이다. 회의에는 이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물론 조승래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등 교육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대표는 "올해 개원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부족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학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해서 유치원 3법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유감스럽게 못했다"며, "2월에 처리해서 유치원 문제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반발하는 유치원 관계자들을 다독였다.

홍 원내대표는 "일부 불지각한 비리 유치원 때문에 선의의 많은 유치원의 원장 관계자들이 비판을 함께 받는 상황이 됐는데, 그것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해소될 거라고 본다"며 "꼭 표는 하나다. 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치원이 안고 있는 어려움이나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해서 입법이나 정책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유치원 3법이 유치원에서 지금까지 헌신해오신 많은 분들의 명예도 되찾고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민생 행보 1순위로 유치원 3법 처리를 강조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기조에 발 맞춰 보조하겠다는 전라이다.

문 대통령은 "아이들에게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사립 유치원의 투명성 강화와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사립 유치원 문제와 관련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도 강화해야 한다.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민주당의 유치원 행보는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전략이기도 하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해 말 36.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지지율 가운데 최저 기록이다. 이달 초 40.7%로 반등해 두 달 만에 처음으로 40%선을 회복했지만 당 내부에선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연초 회복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지도부의 생각이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방위산업체에 비파괴 검사 노하우 기술이전

세계 최고 수준의 다양한 비파괴 검사 기법을 개발하고 있는 로스알라모스연구소-전북대 한국공학연구소(소장 김래형 교수)가 복합재 구조물에 대한 비파괴 검사 노하우를 최근 국내 방위산업체에 기술이전했다.

연구소는 보유하고 있는 테라헤르츠 파 기반 복합재 내부 결함 가시화 기술을 국내 한 방위산업체에 노하우



기술이전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이전된 기술은 복합재 내부 결함을 영상으로 가시화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것이다.

이 기술에 대한 노하우 이전 비용은 총 1억 원이다.

연구소는 2019년 상반기 중 전체 비파괴 검사 기술 노하우에 대해 추가적인 기술이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 분야에 대한 전망도 매우 밝은 상황이다.

김래형 연구소장은 "이번 기술이전은 해당 기술 개발을 시작하지 1년 반 만에 이런 성과"라며 "기초연구개

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산업체에 직접 적용할 만큼 완벽한 검사 시스템을 구축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개발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로스알라모스연구소-전북대학교 한국공학연구소 미국 로스알라모스연구소와전북대가 공동으로 설립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소다.

기계, 전자, 탄소소재 및 스마트 재료 등 다양한 분야가 접목된 융·복합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최첨단 비파괴검사기술에서부터 스마트 센서 개발, 복합재료 등의 소재기술, 신호

처리 및 제어 기술 등을 보유하여 구조 안전성 관리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전북 소재의 다양한 기업체(중력, 항공, 드론, 탄소섬유, 전자부품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방면의 산학 연구를 수행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비파괴 검사: 구조물을 자르거나 파괴시키지 않고 그 내부의 결함을 탐지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X-ray 검사 등을 들 수 있다. 로스알라모스연구소-전북대 한국공학연구소에서는 인체에 무해한 파(wave)를 이용한 비파괴 검사 기법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드론 산업' 통해 진로 탐색 기회 제공

### 전북대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 무인항공촬영 전문가 배출

전북대학교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센터장 김동원)가 25명의 무인항공 촬영전문가를 배출했다.

센터는 드론을 활용한 항공사진 촬영과 편집 능력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자격과정을 만들고, 광주대 공학교육혁신센터 등과 교육과 자격시험 등을 진행했다.

이번 자격과정에는 5개 대학(전북대, 광주대, 공주대, 목포대, 순천향대) 25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으며, 드론에 대한 이론과 조종 연습, 자격 시험 등을 치러졌다.

이 과정에서는 드론에 대한 이론(안전교육, 항공법, 비행 원리 등)과 드론 조종 연습(호버링, 장애물 통과미션, 이·착륙 등), 드론 조립 및 미니

드론 장애물 경기 등이 이어졌다.

5명씩 총 5개조로 나뉘어 그간 전북대 및 한옥마을 일대, 혁신도시, 전주역 일대 등을 드론을 활용해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직접 편집까지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이어진 필기와 실기 시험에서 모든 학생들이 교육 수료와 자격증 합격의 영예까지 안아 좋은 성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동원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드론 산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가 25명의 무인항공촬영전문가를 배출했다.

## '백혈병 아이들에게 평범함을 선물'

### 전주상업정보고 이수경 학생, 세 번째 모발 기부 '훈훈'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3학년 이수경 학생이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발기부를 해 온 것으로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수경양은 지난 1월 초 긴 머리카락을 단발로 삭둑 잘랐다. 백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의 기발 제작에 쓰이는 '모발기부'를 위해서다.

수경양의 모발기부는 중학교 2학년이던 2014년과 2018년, 그리고 올해까지 벌써 세 번째다. 수경양은 모발이 자라는 속도가 보통 사람보다 빨라 1년 만에 다시 모발기부를 할 수 있었다.

수경양은 "TV 프로그램에서 백혈병으로 머리카락이 다 빠진 어린이들을 봤다. 머리카락은 누구나 다 있는 평범한 것인데, 그 아이들은 평범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이 아왔다"면서 "백혈병 아이들에게 평범함을 느끼게 해주고픈 마음에서 모발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경양이 어린이들의 아픔을 더 안타깝게 느끼는 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엄마의 영향이 크다.

수경양은 "엄마가 어린이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항상 어린이들이 있었고, 그 아이들이 모두 동생처럼 느껴졌다"면서 "백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동생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을 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모발기부는 생각만큼 쉽지 않다. 염색이나 파마, 탈색 같은 미용기술이 들어간 모발은 기발을 만드는 과정에서 녹아버리기 때문에 기부가 되지 않는다. 또 모발 길이가 25cm 이상으로 길어



야 소아암 아동들이 일하는 머리 스타일을 제작할 수 있어 최소 1년 이상 길러야만 가능하다.

한창 멋을 낼 나이인 수경양은 "우리 학교는 파마, 염색 등이 다른 학교보다는 자유로워 친구들이 예쁘게 염색하거나 파마한 모습을 보면 나도 해볼까 하는 유혹에 빠지기도 했다"고 웃어보였다.

졸업을 앞두고 있는 수경양은 "학생회 활동, 봉사활동, 뮤지컬, 댄스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재미있는 학교생활을 했다"면서 "취업 걱정이 있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 자신을 믿고 도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작은 학교 살리고 과밀학교 부담 해소한다

### 도교육청, 도시형 어울림학교 추진

전북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이 도시형 어울림학교 3곳을 추진한다.

도시형 어울림학교는 도시의 작은 학교와 과밀학교가 있는 주변의 대규모 학교를 공동통학구로 지정해 대규모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학생 전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게 된다.

2019년 도시형 어울림학교 선정학교는 전주용덕초, 군산대흥초, 이리

남초 등 3개교이며 2022년까지 전주군산 익산에 10개교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과 함께 마을의 가치를 담은 마을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고 작은 학교의 노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전입한 학생들에게 통학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정기간은 3년이며 2019년도 지원 예산은 약 9천만원(3개교) 정도이다. /장은성 기자

